

노후생활 대책에 대한 성년층의 의식연구

— 서울과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ult's Consciousness to the Provision for Elderly Life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 손 선 경

조교수 : 임 정 빈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Hanyang Univ.*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Hanyang Univ.*

Son, Seon Gyoung

Assistant Professor : Im, Jung Bin

목 차

I. 서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문제의 제기	1. 조사도구의 작성
2. 연구의 목적	2.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II.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제한점
1. 노인문제의 대두와 인구의 고령화	IV. 연구결과 및 해석
2. 노인과 사회환경	V. 요약 및 결론
3. 노인복지법	영문개요
4. 정년제가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 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d adult's consciousnes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basic data about set-up any concrete plan and provision for elderly life in home and society.

In this paper, the study of concerned reference and social survey by questionnaire are used. The data is obtained from 326 espondents who are 30 to 54 years old in Seoul and Andong. As to consciousness to the provision for elderly life and situation of set-up any concrete plan, the x^2 (chi-square) is applied to the analysis of regional, socio-economical, demographic differenc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Although the respondents show positive attitude toward consciousness to the provision for elderly life, their behavior does not show any sign of translating it into reality.

2) The consciousness to the provision for elderly life varies according to regional, socio - economical, demographic variance.

Those who are in their 30's, more - educated, and high - income want to be more independent from their children and express strong desire to set - up provision for elderly life in advance. This is also true of those living in city.

As a results, as adults (30 - 54)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ovision for elderly life, so the support by the society or governmental policy for the solution of better - life for old people is important. However, mental, physical, economical preparation in family life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cycle can basic solution.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노인문제는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현대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서구사회에서도 19세기말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양해 왔기 때문에 노후생활 그 자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6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러 행해지고 있는 제5차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노인의 사회적응이 점점 어렵게 되고, 핵가족화의 일반화와 가족성원의 연대의식의 약화 등으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노인의 지위가 날로 하락해 가는 등, 현 단계에서는 노인문제를 부정할 수 없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노인문제는 주로 경제문제에서부터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자신의 노후생활 대책을 스스로 준비해 두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문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계대책이며, 다음이 질병의 문제, 주택문제 등이다(박재간, 1979, p. 2).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인 동시에 나아가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노인문제는 그 자체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는 노인의 부양, 건강복지

등 노년기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년기를 문제의 독립된 단계로만 보기보다는 인간발달의 연속과정의 한 단계로 봄으로써 인생의 최후까지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이 되었을때 인생의 노년기에 대한 필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긍정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한편,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 개개인의 노년기에 임하는 태도와 대책수립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가족의 노인에 대한 부양태도 내지는 복지정책 수립을 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노인이 될 성년층을 대상으로 노후대책에 대한 의식과 현재의 대책수립 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이들에게 인간의 가능성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도 남아 있으며, 노화는 인간발달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각각 노인생활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위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둔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시기에 있어 가정을 이루고 있는 30~54세의 성년층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직업에서 은퇴한 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의식과 현재의 대책수립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낯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일반 성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태도와 수립상황 및 노후의 취업의식과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안동)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2)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로 노후생활태도와 대책수립상황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문제의 대두와 인구의 고령화

(1) 노인의 개념

노인의 개념은 특정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 '노인'의 이론적 정의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된다고 간주되는 노년연령은 60-65세 이후로 규정(윤진, 1982, p. 5)하여 노년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노인이 고령으로 인해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능력감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개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노화과정에 있어서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수준에 따른 개인차가 심하며, 노화현상은 자연스러운 인간발달의 한 과정으로서 이는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가지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노년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노인으로 인정되는 연령과 본인 자신이 노인이 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연령, 그리고 노인이 됨으로써 그 개인의 일상생활에 곤란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연령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의 개념에서는 본인의 주관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현상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 및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김성순, 1981, p. 63)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문제의 대두

최근 세계적으로 노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후반부터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변동으로부터 일어나는 노인문제를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산업화, 도시화로 표현되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응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가족이 동과 핵가족화의 일반화로 노인의 지위가 날로 하락해 가고 있는 점이다. 셋째, 서구의 새로운 가치관과 동양윤리와의 갈등속에서 신세대와 구세대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심화되어 가는 한편 종래의 부모에 대한 자식의 유교적 '효도관'은 개인주의적, 합리주의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김성순, 1981, pp.12-13)

이밖에도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인간의 노화,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의 이동과 가족기능의 변모에 따른 개인적 부양의 감소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서 등장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森幹郎, 1982, p.32).

(3)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고령화

20세기에 와서 세계여러지역에서 태어나 유아 사망률이 감소되고 또한 출생률도 저하되었으며,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기초적인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가지 전염병이 감소되는등 여러 요인이 중복되어 장수하는 인구의 수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연합의 '세계인구연감'(1975년판)에 따르면, 세계 전인구중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수는 1975년에 3억 5천만명이고, 2000년에는 5억 9천만명, 2025년에는 11억이상일 것이라고 추이하고 있다. 즉, 지금부터 45년후에는 고령자가 세계 인구의 13.7%를 차지하게 된다(고령자문제 국제행동계획, 1982, p. 4).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노인인구의 실수증가 및 그 증가율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70년대에는 1980년 현재 146만으로 10년간에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인구성장율 1.9%보다 훨씬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는 1990년과 2000년에 각각 201만 및 299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율은 20년간에 통산 연평균 3.7%의 수준으로 동기간중 전국 인구성장율 1.4%의 2.6배가 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본다(윤종주, 1982, p. 58).

2) 노인과 사회환경

(1) 가족생활주기와 노년기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직계가족형태에서 점차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으나, 서구의 핵가족은

부부중심가족이고 횡적관계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부부중심이라기 보다는 부자중심이고 다분히 종적관계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광규, 1982, p. 276).

가족생활 주기의 형태는 핵가족화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친자 동거기가 장기화되면 부분만의 회복기가 단축되어 노후생활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특히 만혼, 다산, 여자의 초혼연령이 고령화할 경우 노후대책을 강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게되며 사회생활에 낙후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만혼인 경우 만혼과 출산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노후대책의 문제가 따르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녀 독립후 회복기가 짧기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곤란하다. 은퇴기 이전에 막내자녀의 혼인이 끝나야 남편이나 아내의 사망전까지 그들 부부만이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얻게된다.

노년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상실하여 가는 시기로 이때 노인이 느끼는 불안, 고립, 소외, 격리는 상실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심리적 결핍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이정숙, 1977, p. 54). 또한, 노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연령은 64-69세로 이 시기는 그들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변화가 없는 데 반하여, 노인은 새로운 역할전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Kalish, R.A., 1975, p. 1).

노부부는 남편의 은퇴로 긴장감과 생활의 변화를 겪게 되는 데 부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자로서의 전통적 역할이 계속됨으로 은퇴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편은 사회적, 직업적 역할에서 은퇴로 인하여 도구적 역할이 상실되며, 사회로부터 고립되므로 그 영향이 생활전반에 심각하게 미치게 된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에 은퇴후의 생활에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큰 역할이었던 도구적역할을 가정내에서의 표현적역할로 대체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Nye, F.I., & Berado, F.M., 1973, pp. 563-590).

은퇴후 남편의 성공적인 적응은 가정내 역할에 어느 정도 참여하며, 아내와의 동리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결국 남편의 은퇴는 부부 모두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하는 문제라 하겠다 (김명자, 1982, p. 47).

(2) 노인과 가족

인간의 기본집단은 가족이며, 그 가족은 구성원의 출생, 사망, 분열등의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내에서 존속하여 간다. 따라서, 사회의 변동은 가족의 형태 및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하면서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지위에 변화를 주게 된다. 그러나, 노인과 그 가족의 결합은 산업화, 근대화, 그리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생활양식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있으나, 직업의 분화, 사회적 격리, 지역적 이동의 가속화의 사회적 복잡성은 가족간의 유대를 자동적으로 와해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단위의 유형이 핵가족이든 또는 확대가족이든지 간에 노인들의 가족관계는 바로 이러한 가족단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Bengtson, V.L., etc, 1975, p. 13).

현대는 노인과 자녀들과의 연대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나, 가족은 노인과 행정조직 사이의 중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가족은 노인에게 정보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연금, 의료보호 및 다른 유용한 선택의 자유와 자격에 관한 것을 알려주고 도와준다. 따라서 사회적, 지역적 조직과 기구에 노인을 참여시킴으로써 노인의 소외감, 절망감과 실패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가족은 특히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수행면에서 노인을 보호하고 후원하는 체제로서 불가피한 것이다 (김태현, 1982, p. 4).

동서양을 막론하고 산업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노인부양체제에 있어서 가족부양 체제에서 사회적 부양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나, 가족은 생활의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되는 집단이므로 노인부양의 문제도 우선은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인과 가족의 효과적인 결합을 위해서 경제적, 정서적, 서어비스적인 면에서 가족이 노인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자발성과 자신감을 준다면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노인 복지법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정단위로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서비스의 제공과 제도적 보장을 확립하여 노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단순한 구호사업이나 보호의 개

념이 아니고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고 역할과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사는 보람을 갖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한국 노인복지법의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6월, 한국 초유의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가족제도의 장점과 서구적 사회보장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증진의 책임면에서 국가사회, 그리고 노인자신 등 3자의 공동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산업화 사회가 가져온 노인문제, 특히 노인층이 일거리와 역할을 상실하여 소외되어 가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여 노인의 일거리, 여가선용 등 역할증진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

네째, 보호를 요하는 노인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노인 건강대책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의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노인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우대제를 규정하고 노인주택의 건설을 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외성, 1983, pp. 74 - 75).

(3) 노인복지 시책의 당면과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사업은 아직 기초 단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진 여러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가 겪은 여러시책의 장점을 고려하여 우리에게 알맞는 복지제도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과제는 첫째, 현재 법적기초가 마련되어 있는 국민연금 보험제도를 가능한 빨리 실시하여 전 국민이 연금보험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들의 건강, 의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충식, 1982, p. 241). 셋째,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 문화를 연구 발전시켜 우리의 고유문화인 경로사상을 토착화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정신 문화적 생활양식을 계속 존속시킴으로써 노인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재성, 1982, p. 223). 네번째, 노인 자율복지사업을 개

발, 지원하는 일이다. 즉, 노인정, 경로당, 지역복지관 등을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활성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훈장으로서, 가정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두보, 1982, p. 202).

4) 정년제가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의 정년제와 그 추세

정년제의 형태는 성, 직종, 직급을 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은 일률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중 72.9%가 만 55세, 9.1%가 만 60세 또는 만 5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협회, 1979).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은 제급 및 직무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안직은 50세부터 61세, 기능직은 40세에서 61세, 일반직 공무원은 55세(4, 5급)와 61세(3급이상)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공, 사립교원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대부분 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어 일생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온 노동자가 본인의 의사나 신체적 조건과는 관계없이 일찌기 그들의 직장을 떠나야 하므로 노인아닌 노인을 낳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에 제정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복지연금법에 남자 60세, 55세를 연금 수급연령으로 제도화하고 있어 이 제도가 실시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정년제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60세 이상으로 점차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재성, 1982, p. 31).

(2) 사회개발에 미치는 고령화의 영향

인구의 고령화는 20세기의 문제로서 사회 및 경제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고령자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직을 개발하고, 그밖에 시간제 고용, 임시고용, 고문등의 방법으로 고령자 취업의 기회를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시켜 중고령자의 유효노동력을 흡수,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소득과 연결되는 동시에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고독과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는 사장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소득을 늘인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고령자문제국제행동계획, 1982, p. 14).

서서히 연장되고 있는 수명은 국가경제의 잠재적 자원이다. 젊은층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은퇴연령을 낮추는 일이 현명하게 생각될 지라도 이와 같은 방책은 하나의 사회문제를 단기적, 부분적으로 해결할 뿐 오래 계속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임의 작성하여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항
- (2) 노후생활에 대한 태도에 관한 사항
- (3) 노후생활대책의 수립상황에 관한 사항
- (4) 노후의 취업의식 및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사항 등을 질문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가장 근대화된 지역과 전통적인 지역을 임의로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근대화된 지역으로는 서울의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통적인 지역의 경우, 비교적 전통적 가치의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안동지역을 택하여 조사하였다.

지역별 조사대상자는 30세이상 55세미만인 성년층 남·녀로서 서울지역이 166명, 안동지역이 160명이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사전검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면접법을 사용하였으며, 면접요원은 연구자와 대학원생이었다. 면접요원에게는 본 연구의 취지와 면접방법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시의 조건을 통일하는 데 특히 유의하였다.

안동지역에서의 본조사 시기는 1983년 9월 5일~9일로 소산동(안동군 풍산읍), 하회동(안동군 풍천면), 안막동에서 연구자와 대학원생 2명, 길원여고 교사 1명이 함께 직접 면접한 총 16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에서의 본조사 시기는 1983년 9월 13일~17일로 암사 시민아파트 19명, 잠실주공아파트 21명, 29

명,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25명, 33명으로 총 166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면접요원은 연구자와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로 각 항목마다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항목의 집단간 차이는 χ^2 검증법을 적용하여 유의도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 P. S. 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표집이 이루어져야 하나 서울과 경상북도 안동, 두 지역의 성년층만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2) 표집수가 적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3)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및 설문지에 의한 응답결과에만 의존하였다.

(4) 조사지를 지역별로 표집하여 경제수준별, 학력별 사례수가 불균형함을 인정한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사항은 (표 1)과 같다.

(1) 성별

(표 1)과 같이 서울·안동 모두 남녀비율은 약 반반으로 균형된 비율로 표집되었다.

(2) 연령

연령분포는 서울의 경우 30~34세가 36.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안동은 35~39세가 28.7%, 40~44세가 27.5%로 서울에 비해 고른 분포상태를 보였으나, 50~54세의 비율은 9.4%로 가장 낮았다.

(3) 학력

서울은 전문대·대졸이상 54.8%, 고졸이 31.3%의 비율을 보였고, 안동에서는 국졸이하가 36.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전문대, 대졸이상은 5.0%이다.

(4) 월수입

서울은 65만원 이상이 35.5%, 36~45만원이 18.7%, 46~55만원이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동은 26~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일반사항	분 류	서 울 N(%)	안 동 N(%)	서울+안동 N
성 별	남 자	74 (44.6)	86 (53.7)	160
	여 자	92 (55.4)	74 (46.2)	166
연 령	30 - 34 세	61 (36.7)	31 (19.4)	92
	35 - 39 세	34 (20.5)	46 (28.7)	80
	40 - 44 세	21 (12.7)	44 (27.5)	65
	45 - 49 세	27 (16.3)	24 (15.0)	51
	50 - 54 세	23 (13.9)	15 (9.4)	38
학 력	국졸이하	7 (4.2)	58 (36.2)	65
	중 졸	16 (9.6)	51 (31.9)	67
	고 졸	52 (31.3)	43 (26.9)	95
	전문대·대졸이상	91 (54.8)	8 (5.0)	99
평균 월수입	15만원이하	1 (0.6)	24 (15.0)	25
	16 - 25	12 (7.2)	13 (8.1)	25
	26 - 35	17 (10.2)	47 (29.4)	64
	36 - 45	31 (18.7)	27 (16.9)	58
	46 - 55	28 (16.9)	21 (13.1)	49
	56 - 65	18 (10.8)	18 (11.3)	36
	66만원이상	59 (35.5)	10 (6.3)	69

표 2 노후대책에 대한 의식

지 역	내 용	세울 필요성에 대한 의식		
		세워야 한다 N(%)	세울 필요 없다 N(%)	합 계
서 울		159 (95.8)	7 (4.2)	166
안 동		144 (90.0)	16 (10.0)	160
합 계		303 (92.9)	23 (7.1)	326

$\chi^2 = 4.15529$
df = 1
P < 0.01

35 만원이 29.4%, 36~45 만원이 16.9%, 15 만원이하가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노후생활에 대한 태도
(1) 경제적인 면에 대한 태도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특히 경제적인 계획)를 꾀었을 때부터 「세워야 한다」라고 응답한 자가 서울의 경우 95.8%, 안동이 90.0%로 두 지역 모두 이에 대해 강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인 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노후에 경제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물음에 대하여는 지역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지역별 (P<0.005)로는 서울의 경우,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립형」이 5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안동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의존하겠다는 「자녀 의존형」이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두

표 3. 경제적인면에 대한 태도

변 인		내 용 지 역	자녀의존형 N (%)	자립형	사회시설 의 존형	무방비형	합 계	
지 역 별	서 울 안 동	서 울	49 (29.5)	88 (53.0)	12 (7.2)	17 (10.2)	166	$x^2 = 15.31753$ df = 3
		안 동	80 (50.0)	56 (35.0)	12 (7.5)	12 (7.5)	160	
	합 계	129 (39.6)	144 (44.2)	24 (7.4)	29 (8.9)	326	P < 0.005	
성 별	남 자	서 울	17 (22.9)	48 (64.9)	5 (6.8)	4 (5.4)	74	서울 : $x^2 = 8.56606$ df = 3 P < 0.05
		안 동	43 (50.0)	30 (34.9)	7 (8.1)	6 (7.0)	86	
	여 자	서 울	32 (34.8)	40 (43.5)	7 (7.6)	13 (14.1)	92	
		안 동	37 (50.0)	26 (35.1)	5 (6.8)	6 (8.1)	74	
	합 계	129	144	24	29	326		

표 4. 신체적인면에 대한 태도

변 인		내 용 지 역	자녀의존형 N (%)	자립형	사회시설 의 존형	무방비형	합 계		
지 역 별	서 울 안 동	서 울	84 (50.6)	60 (36.1)	5 (3.0)	17 (10.2)	166	$x^2 = 14.50007$ df = 3	
		안 동	113 (70.6)	32 (20.0)	5 (3.1)	10 (6.3)	160		
	합 계	197 (60.4)	92 (28.2)	10 (3.1)	27 (8.3)	326	P < 0.005		
학 력 별	국졸이하	서 울	4 (57.1)	1 (14.3)	2 (28.6)	0 (0.0)	7	서울 : $x^2 = 28.02782$ df = 9 P < 0.005	
		안 동	44 (75.9)	6 (10.3)	2 (3.4)	6 (10.3)	58		
	중 졸	서 울	9 (56.3)	3 (18.8)	0 (0.0)	4 (25.0)	16		
		안 동	36 (70.6)	13 (25.5)	0 (0.0)	3 (3.9)	51		
	고 졸	서 울	32 (61.5)	15 (28.8)	1 (1.9)	4 (7.7)	52		
		안 동	30 (69.8)	8 (18.6)	3 (7.0)	2 (4.7)	43		
	대졸이상	서 울	39 (42.9)	41 (45.1)	2 (2.2)	9 (9.9)	91		안 동 : $x^2 = 18.79046$ df = 9 P < 0.05
		안 동	3 (37.5)	5 (62.5)	0 (0.0)	0 (0.0)	8		
합 계	197	92	10	27	326				
소득 수 준 별	25만원이하	서 울	9 (69.2)	1 (7.7)	0 (0.0)	3 (23.1)	13	서울 : $x^2 = 19.89389$ df = 9 P < 0.005	
		안 동	26 (70.3)	4 (10.8)	1 (2.7)	6 (16.2)	37		
	26 - 55	서 울	47 (61.8)	19 (25.0)	2 (2.6)	8 (10.5)	76		
		안 동	71 (74.7)	18 (18.9)	3 (3.2)	3 (3.2)	95		
	56만원이상	서 울	28 (36.4)	40 (51.9)	3 (3.9)	6 (7.8)	77		안 동 : $x^2 = 13.71474$ df = 9 P < 0.05
		안 동	16 (57.1)	10 (35.7)	1 (3.6)	1 (3.6)	28		
합 계	197	92	10	27	326				

지역간의 의식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별 (P<0.05)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서울의 경우, 「자립형」이 남자 64.9%, 여자 43.5%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강한 반응을 보였으며, 안동의 경우에는 남·녀 공히 「자녀 의존형」이 50.0%로 나타났다.

(2) 신체적인 면에 대한 태도

만약 노후에 신체의 자유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면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자녀 의존형」이 서울과 안동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으로 강한 반응을 보였다.

변인별로 보면 성별, 연령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지역별 (P<0.005), 학력별 (서울 P<0.005, 안동 P<0.05), 소득수준별 (서울 P<0.005, 안동 P<0.05)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학력별로 보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적인 면에서는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립형」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서울인 경우, 상층에서는 「자립형」에 51.9%로 높은 반응을 보였고, 중·하층에서는 「자녀 의존형」에 과반수 이상의 높은 반응이 나타났다. 안동에서는,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층에서 「자녀 의존형」에 과반수 이상의 높은 반응이 나타나 지역간의 의식차이를 볼 수 있었다.

표5. 경제적 계획의 수립상황

번 인		내용 지역	하고있다	앞으로 하려고한다	생각해 본적이없다	합 계		
지 역 별		서 울	58 (34.9)	101 (60.8)	7 (4.2)	166	$x^2=14.26687$ df = 2 P < 0.005	
		안 동	38 (23.8)	97 (60.6)	25 (15.6)	160		
		합 계	96 (29.5)	198 (60.7)	32 (9.8)	326		
연 령 별	30 - 34세	서 울	3 (4.9)	53 (86.9)	5 (8.2)	61	서 울 : $x^2=48.93343$ df = 8 P < 0.005	
		안 동	2 (6.5)	23 (74.2)	6 (19.4)	31		
	35 - 39세	서 울	16 (47.1)	18 (52.9)	0 (0.0)	34		
		안 동	9 (19.6)	28 (60.9)	9 (19.6)	46		
	40 - 44세	서 울	15 (71.4)	5 (23.8)	1 (4.8)	21		
		안 동	16 (36.4)	24 (54.5)	4 (9.1)	44		
	45 - 49세	서 울	16 (59.3)	10 (37.0)	1 (3.7)	27		
		안 동	9 (37.5)	13 (54.2)	2 (8.3)	24		
	50 - 54세	서 울	8 (34.8)	15 (65.2)	0 (0.0)	23		
		안 동	2 (13.3)	9 (60.0)	4 (26.7)	15		
		합 계	96	198	32	326		
소 득 수 준 별	25 만 원 이하	서 울	1 (7.7)	11 (84.6)	1 (7.7)	13	서 울 : $x^2=54.53991$ df = 4 P < 0.005	
		안 동	2 (5.4)	25 (67.6)	10 (27.0)	37		
	26 - 55	서 울	9 (11.8)	66 (86.8)	1 (1.3)	76	안동 : $x^2=20.03464$ df = 4 P < 0.005	
		안 동	22 (23.2)	61 (64.2)	12 (12.6)	95		
	56 만 원 이상	서 울	48 (62.3)	24 (31.2)	5 (6.5)	77		
		안 동	14 (50.0)	11 (39.3)	3 (10.7)	28		
		합 계	96	198	32	326		

3) 노후생활 대책의 수립상황

(1) 경제적인 계획의 수립상황

응답자 중 서울의 경우 34.9%, 안동의 경우 23.8%는 현재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장차 수립할 계획을 가진 응답자는 서울이 60.8%, 안동이 60.6%로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전혀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서울 42%, 안동 15.6%로 나타나, 노후의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앞으로 하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변인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고 ($P < 0.005$), 안동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P < 0.005$).

즉,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45세 이상부터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40-50대 초반의 시기는 경제적으로 자녀들의 중·고등·대학교등의 학비문제와 자녀들의 결혼문제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을 위한 노후대책을 세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목적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계획을 실제로 하고 있는 자와 장차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294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목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지역별 ($P < 0.005$), 학력별 ($P < 0.005$)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볼 때, 서울과 안동 모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가 각각 51.6%, 55.6%로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으나,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에서는 서울이 44.1%로 안동의 25.0%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아 두지역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3) 노후에 기대되는 수입원 (복수응답)

노후에 기대되는 수입원은 변인별로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퇴직금·저축·이자배당금」에 45.3%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동의 경우에도 1순위는 같게 나타났으나 2순위에 있어서는 서울과는 달리 「노동 또는 사업수입」에 있

표 6. 경제적인 계획수립의 목적

변 인		지역	내용	자녀에게 의지하	어려운일에 대비	노후생활을 보람있	합계	
				지 않기 위해	하기 위해	게 보내기 위해		
지 역 별		서 울		83 (51.6)	7 (4.3)	71(44.1)	161	$x^2=21.20468$ df=2 P < 0.005
		안 동		74 (55.6)	25 (21.8)	34(25.5)	133	
		합 계		157 (53.4)	32 (10.9)	105 (35.7)	294	
학 력 별	국졸이하	서 울		3 (37.5)	3 (37.5)	2 (25.0)	8	서울: $x^2=25.03258$ df=6 P < 0.005 안동: $x^2=39.08756$ df=6 P < 0.005
		안 동		14 (32.6)	19 (44.2)	10 (23.2)	43	
	중 졸	서 울		11 (64.7)	1 (5.9)	5 (29.4)	17	
		안 동		33 (70.2)	4 (8.5)	10 (21.3)	47	
	고 졸	서 울		26 (50.9)	2 (3.9)	23 (45.1)	51	
		안 동		25 (71.4)	2 (5.7)	8 (22.9)	35	
대졸이상	서 울		43 (50.6)	1 (1.2)	41 (48.2)	85		
	안 동		2 (25.0)	0 (0.0)	6 (75.0)	8		
		합 계		157	32	105	294	P < 0.005

어서 32.8%로 서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P < 0.005$).

그리고, 「자녀들의 원조」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안

동의 경우 16.7%로 서울의 5.3%에 비하여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표 7. 노후에 기대되는 수입원

변 인	내용		공적연금	자녀들의 원 조	퇴직금, 저 축, 이자배 당금	보험금	노동 또는 사업수입	합계	
	지역								
지 역 별	서울		23(8.4)	18(6.6)	124(45.3)	59(21.5)	50(18.2)	274	$x^2 = 49.43393$ df = 4 $P < 0.005$
	안 동		0(0.0)	37(16.7)	95(42.8)	17(7.6)	73(32.8)	222	
	합 계		23(4.6)	55(11.1)	219(44.2)	76(15.3)	123(24.8)	496	
소 득 수 준 별	25만원 이하	서울	2(6.1)	4(12.1)	10(30.3)	4(12.1)	13(39.4)	33	서울 :
		안 동	0(0.0)	13(24.5)	16(30.2)	2(3.8)	22(41.5)	53	$x^2 = 15.726263$
	26-55	서울	8(8.7)	6(6.5)	42(45.7)	15(16.3)	21(22.8)	92	df = 8
		안 동	0(0.0)	18(15.3)	49(41.5)	7(5.9)	44(37.3)	118	$P < 0.05$
	56만원 이상	서울	13(8.7)	8(5.4)	72(48.3)	34(22.8)	22(14.7)	149	안동 :
		안 동	0(0.0)	6(11.8)	30(58.8)	8(15.7)	7(13.7)	51	$x^2 = 21.30031$
합 계		23	55	219	76	123	496	df = 6 $P < 0.005$	

표 8. 자녀와의 동거의식

변 인	내용		원 한 다	원하지 않는다	합 계	
	지역					
지 역 별	서울		70(42.2)	96(57.8)	166	$x^2 = 7.66030$ df = 1 $p < 0.01$
	안 동		92(57.5)	68(42.5)	160	
	합 계		162(49.7)	164(50.3)	326	
연 령 별	30-34세	서울	18(29.5)	43(70.5)	61	서울 : $x^2 = 26.42701$ df = 4 $p < 0.005$
		안 동	11(35.5)	20(64.5)	31	
	35-39	서울	9(26.5)	25(73.5)	34	
		안 동	28(60.9)	18(39.1)	46	
	40-44	서울	7(33.3)	14(66.7)	21	
		안 동	28(63.6)	16(36.4)	44	
	45-49	서울	19(70.4)	8(29.6)	27	
		안 동	15(62.5)	9(37.5)	24	
	50-54	서울	17(73.9)	6(26.1)	23	
		안 동	10(66.7)	5(33.3)	15	
	합 계		162	164	326	

기대되는 수입원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 「퇴직금·저축·이자배당금」과 「보험금」에 기대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서울 $P < 0.05$, 안동 $P < 0.01$)

본 조사에서 「공적연금」에 기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1980년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자수가 80여만명으로 전인구의 21%, 그리고 전 경제활동인구의 5.6%에 불과한 실정(민재성, 1980)이므로 본 조사에서도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안동의 경우는 농업위주의 농가였으므로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4) 자녀와의 동거의식

(1) 동거의식

노후에 자녀들과의 동거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49.7%가 「원한다」라고 답했으며, 50.3%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긍정과 부정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안동의 경우에 서울보다는 「원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P < 0.01$).

그리고, 동거의식은 연령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 수록 두지역 모두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P < 0.005$).

(2) 자녀와 동거하려는 이유 (복수응답)

동거이유는 변인별로 볼 때,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려는 이유를 「자식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형태가 좋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반응을 보였고, 안동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 지역간의 의식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P < 0.005$).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식과 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형태가 좋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P < 0.005$, 안동 $P < 0.05$).

5) 정년퇴직에 대한 반응

(1) 현 정년퇴직 연령에 대한 반응

변인별로는 지역별, 연령별에 따른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즉, 현 정년퇴직 연령이 「부적당하므로 조정되어야 한다」가 서울인 경우 66.3% 안동이 39.4%로 서울에서 강한 반응이 나타났으며, 지방(안동)의 경우 「적당하다」는 응답자가 많아서 여기에서도 지역차이가 나타났다 ($P < 0.005$).

표 9.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 이유

변 인		내 용 지역	경제력이	활동할수	외로우니까 의지하고 살기 위해 서	자식부부가 부모를 모 시는 가족 형태가 좋 기 때문	자식이 부 모를 모시 는 것은 당 연하기 때 문	합계	
			없을 것이 없을 것이 므로	없을 것이 없을 것이 므로					
지 역 별		서 울	4(5.1)	4(5.1)	15(19.2)	45(57.7)	10(12.8)	78	$x^2 = 15.56710$ df = 4 $P < 0.005$
		안 동	3(3.2)	5(5.3)	17(18.1)	33(35.1)	36(38.3)	94	
		합 계	7(4.1)	9(5.2)	32(18.6)	78(45.4)	46(26.7)	172	
소 득 수 준 별	25만원 이 하	서 울	1(11.1)	2(22.2)	2(22.2)	1(11.1)	3(33.3)	9	서울 : $x^2 = 17.06851$ df = 8
		안 동	0(0.0)	1(3.6)	6(21.4)	4(14.3)	17(60.7)	28	
	26 - 55 만원	서 울	3(8.3)	1(2.8)	5(13.9)	23(63.9)	4(11.1)	36	$P < 0.05$
		안 동	3(5.7)	2(3.8)	9(16.9)	22(41.5)	17(32.1)	53	
	56 만원 이 상	서 울	0(0.0)	1(3.0)	8(24.2)	21(63.6)	3(9.1)	33	안동 : $x^2 = 42.167796$ df = 8 $P < 0.005$
		안 동	0(0.0)	2(15.4)	2(15.4)	7(53.8)	2(15.4)	13	
합 계			7	9	32	78	46	172	

그러나, 안동의 경우는 서울보다는 적은 비율이지만 두지역 모두 현 정년연령에 대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정년퇴직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은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현 정년연령이 「부적당하다」거나 정년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정년퇴직 연령에 가까운 연령층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현

정년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이 나타나 이는 주목된다.

(2) 적당한 퇴직시기

적당한 퇴직시기로서 응답자들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가 서울의 경우 80.7%, 안동의 경우 71.3%로 두지역 모두 매우 강한반응을 나타냈다.

일본 총리부의 조사(朝日新聞, 1983, 48)에서도 성년층의 조사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건강이 허락할

표 10. 현 정년퇴직 연령에 대한 반응

변 인	지역	내용		정년퇴직제도는 없애야 한다	생각해 본일이 없다	합계		
		적당하다	부적당하므로 조정되어야 한다					
지역 별	서울	14 (8.4)	110 (66.3)	38 (22.9)	4 (2.4)	166	$x^2=49.56656$ df = 3 P < 0.005	
	안동	49 (30.6)	63 (39.4)	24 (15.0)	24 (15.0)	160		
	합계	63 (19.3)	173 (53.1)	62 (19.0)	28 (8.6)	326		
연령 별	30 - 34 세	서울	2 (3.3)	40 (65.6)	17 (27.9)	2 (3.3)	61	서울 : $x^2=21.15910$ df = 12 P < 0.05
		안동	7 (22.6)	14 (45.8)	6 (19.4)	4 (12.9)	31	
	35 - 39	서울	2 (5.9)	21 (61.8)	11 (32.4)	0 (0.0)	34	안동 : $x^2=29.66774$ df = 12 P < 0.005
		안동	10 (21.7)	19 (41.3)	6 (13.0)	11 (23.9)	46	
	40 - 44	서울	1 (4.8)	15 (71.4)	4 (19.0)	1 (4.8)	21	안동 : $x^2=29.66774$ df = 12 P < 0.005
		안동	19 (43.2)	18 (40.9)	3 (6.8)	4 (9.1)	44	
	45 - 49	서울	6 (22.2)	21 (77.8)	0 (0.0)	0 (0.0)	27	안동 : $x^2=29.66774$ df = 12 P < 0.005
		안동	11 (45.8)	10 (41.7)	3 (12.5)	0 (0.0)	24	
	50 - 54	서울	3 (13.0)	13 (56.5)	6 (26.1)	1 (4.3)	23	안동 : $x^2=29.66774$ df = 12 P < 0.005
		안동	2 (13.3)	2 (13.3)	6 (40.0)	5 (33.3)	15	
	합계		63	173	62	28	326	

표 11. 적당한 퇴직시기

지역	내용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정년까지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이 될 때까지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할 수 있을 때까지	합계	
안동	114 (71.3)	0 (0.0)	9 (5.6)	20 (12.5)	17 (10.6)	160		
합계	248 (76.1)	11 (3.4)	25 (7.7)	23 (7.1)	19 (5.8)	326		

때 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해 우리나라의 경우와 일치하고 있다.

박재간, 임춘식의 연구(박재간, 임춘식, 1983, p.15)에 의한 노인들의 은퇴연령에 대한 반응을 보아도, 「70세 이상이라도 능력만 있다면 일을 해야한다」고 답한 노인이 53.2%였고, 「만 59세 이전에 은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이와같이 퇴직연령의 연장을 원하는 추세가 성년층, 노년층을 불문하고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노후의 취업의식

노후의 취업의식에서 지역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지역 모두 노후에도 계속 「일하겠다」가 서울 86.2%, 안동 78.8%로 강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서울 $P < 0.005$, 안동 $P < 0.01$). 즉, 「일하겠다」에는 남·녀 모두 강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비유면으로 볼 때 남자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에는 여자의 경우에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남자의 경우에 노후에도 일하겠다는 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노후생활에 대한 설제(복수응답)

노후의 생활에 대한 설제에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종교 및 취미생활을 하

겠다」에 높은 반응(60.8%)을 보였으며, 안동의 경우는 「집안일을 도우며 자녀에게 위탁하겠다」에 높은 반응(30.5%)을 보여 두지역간의 의식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을 갖겠다」와 「사회봉사 활동을 하겠다」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안동에서 더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이 주목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서울 $P < 0.05$, 안동 $P < 0.005$),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서울, 안동 $P < 0.005$) 「집안일을 도우며 자녀에게 위탁하겠다」에 대한 반응은 감소하고 「종교 및 취미생활을 하겠다」와 「사회적인 단체에 가입하겠다」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주체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복수응답)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는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전체 응답자의 52.1%, 「정신적인 고독」이 18.4%, 「경제적인 문제」 16.9%로 두 지역에서 모두 「신체적인 건강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2) 노후문제의 해결방안(복수응답)

서울과 안동의 응답자들은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첫째,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34.2%), 다음이 「경제력을 지니도록 한다」(22.3%)로 나타났다. 「취미생활을 한다」(13.5%)와 「원만한 친

표 12. 노후의 취업의식

변 인		내용 지역	일 하겠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 좋다	하지 않겠다	합 계	
지 역 별		서울	143 (86.2)	18 (10.8)	5 (3.0)	166	
		안동	126 (78.8)	25 (15.6)	9 (5.6)	160	
		합 계	269 (82.5)	43 (13.2)	14 (4.3)	326	
성 남 자 별 여 자	서울	남 자	71 (95.9)	1 (1.4)	2 (2.7)	74	서울: $x^2=12.62586$ df = 2 $P < 0.005$ 안동: $x^2=10.36337$ df = 2 $P < 0.01$
		여 자	76 (88.4)	7 (8.1)	3 (3.5)	86	
	안동	남 자	72 (78.3)	17 (18.5)	3 (3.3)	92	
		여 자	50 (67.6)	18 (24.3)	6 (8.1)	74	
	합 계		269	43	14	326	

표 13. 노후에 대한 설계(복수응답)

변 인		내용 지역	집안일을 도우며 자녀에게 의탁	종교 및 취 미생활을 한다	직업을 갖겠다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	사회적인 단체에 가입한다	막막하다	합계	
지 역 별	서울	15 (7.1)	129 (60.8)	26 (12.2)	21 (9.9)	19 (8.9)	2 (0.9)	212	$x^2=71.18627$	
	안 동	61 (30.5)	50 (25.0)	37 (18.5)	28 (14.0)	17 (8.5)	7 (3.5)	200	df = 5	
	합 계	76 (18.4)	179 (43.4)	63 (15.3)	49 (11.9)	36 (8.7)	18 (4.4)	412	P < 0.005	
학 력 별	국졸이하	서울	3 (20.0)	7 (46.6)	3 (20.0)	1 (6.7)	1 (6.7)	0 (0.0)	15	서울 :
		안 동	22 (35.5)	10 (16.1)	10 (16.1)	15 (24.2)	2 (3.2)	3 (4.8)	62	$x^2=25.18457$
	중 졸	서울	5 (15.2)	16 (48.5)	5 (15.2)	4 (12.1)	2 (6.1)	1 (3.0)	33	df = 15
		안 동	18 (32.1)	14 (25.0)	9 (16.1)	8 (14.3)	6 (10.7)	1 (1.8)	56	P < 0.05
	고 졸	서울	5 (8.1)	38 (61.3)	10 (16.1)	3 (4.8)	5 (8.1)	1 (1.6)	62	안동 :
		안 동	18 (28.1)	19 (29.3)	11 (16.9)	4 (6.2)	10 (15.4)	3 (4.6)	65	$x^2=33.67693$
	대졸이상	서울	2 (2.0)	68 (66.7)	8 (7.8)	13 (12.7)	11 (10.8)	0 (0.0)	102	df=15
		안 동	2 (17.6)	7 (41.2)	1 (5.9)	1 (5.9)	5 (29.4)	0 (0.0)	17	P < 0.005
	합 계	76	179	63	49	36	18	412		
소 득 수 준 별	25만원이하	서울	6 (20.7)	8 (27.6)	8 (27.6)	5 (17.2)	2 (6.9)	0 (0.0)	29	서울 :
		안 동	24 (60.0)	3 (7.5)	5 (12.5)	2 (5.0)	3 (7.5)	3 (7.5)	40	$x^2=55.88165$
	25-55	서울	4 (4.6)	43 (49.4)	17 (19.5)	14 (16.1)	7 (8.1)	2 (2.3)	87	df = 10
		안 동	27 (26.2)	29 (28.2)	21 (20.4)	16 (15.5)	8 (7.8)	2 (1.9)	103	P < 0.005
	56만원이상	서울	5 (5.2)	78 (81.3)	1 (1.1)	2 (2.1)	10 (10.4)	0 (0.0)	96	안동 :
안 동		10 (17.5)	18 (31.6)	11 (19.3)	10 (17.5)	6 (10.5)	2 (3.5)	57	$x^2=28.39365$ df = 10 P < 0.005	
	합 계	76	179	63	49	36	18	412		

표 14.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복수응답)

지역	내용 고 득	정신적인 가족 (특히 자 녀들과) 간의 갈등	신체적인 건강문제	경제적인 문 제	은퇴로인한 사 회 및 가정의 재 응 문제	자신이나 배우 자의 죽음에 대 한 두려움	합 계
서울	36 (20.3)	8 (4.5)	77 (43.5)	33 (18.7)	12 (6.8)	11 (6.2)	177
안 동	24 (14.2)	14 (8.3)	93 (55.0)	22 (13.0)	9 (5.3)	7 (4.2)	169
합 계	60 (17.4)	22 (6.4)	170 (49.1)	55 (15.9)	21 (6.1)	18 (5.2)	346

표 15. 노후문제의 해결방안 (복수응답)

지역	내용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경제력을 지니도록 한다	전통적인 가장권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한다	원만한 친구 관계유지를 위해 사회적인 단체에 가입	합계	
	종교를 갖는다	취미생활을 한다						
서울	42 (11.8)	48 (13.4)	121 (33.9)	92 (25.8)	7(1.9)	47 (13.2)	357	$x^2=28.74379$ df = 5 P < 0.005
안동	18 (5.2)	47 (13.5)	120 (34.5)	65 (18.7)	22(6.3)	76 (21.8)	348	
합계	60 (8.5)	95 (13.5)	241 (34.2)	157 (22.3)	29(4.1)	123 (17.4)	705	

표 16. 노인복지대책의 요구내용 (복수응답)

변인	지역	내용		노인연금제	의료혜택	빈곤노인구조	여가시설확보	합계	
		직업알선	노인						
지역별	서울	68 (20.5)	91(27.4)	59 (17.8)	43(13.0)	71 (21.4)	332	$x^2=43.97726$ df = 4 P < 0.005	
	안동	23 (7.2)	75(23.4)	79 (24.7)	88(27.5)	55 (17.2)	320		
	합계	91 (13.9)	166(25.5)	138 (21.2)	131(20.1)	126 (19.3)	652		
연령별	30 - 34세	서울	17 (14.3)	25(21.0)	38 (31.9)	16 (13.4)	23 (19.3)	119	서울 : $x^2=38.70647$ df= 16 P < 0.005
		안동	7 (9.7)	25(34.7)	11 (15.3)	16 (22.2)	13 (18.1)	72	
	35 - 39	서울	10 (16.7)	15(25.0)	8 (13.3)	9(15.0)	18 (30.0)	60	
		안동	6 (7.1)	20(23.8)	19 (22.6)	23 (27.4)	16 (19.0)	84	
	40 - 44	서울	11 (23.4)	13(27.7)	6 (12.8)	7 (14.9)	10 (21.2)	47	
		안동	7 (8.3)	15(17.9)	23 (27.4)	25 (29.8)	14 (16.7)	84	
	45 - 49	서울	17 (26.2)	21(32.3)	5 (7.7)	8 (12.3)	14 (21.5)	65	
		안동	1 (1.9)	9(17.3)	16 (30.8)	17 (32.7)	9 (17.3)	52	
	50 - 54	서울	13 (31.7)	17(41.5)	2 (4.9)	3 (7.3)	6 (14.6)	41	
		안동	2 (7.2)	6 (21.4)	10 (35.7)	7 (25.0)	3 (10.7)	28	
		합계	91	166	138	131	126	652	
	학력별	국졸이하	서울	2 (11.1)	3(16.7)	8 (44.4)	2 (11.1)	3 (16.6)	
안동			2 (2.1)	23(23.7)	32(32.9)	31 (31.9)	9 (9.3)	97	
중졸		서울	4 (9.3)	11(25.6)	15 (34.9)	5 (11.6)	8 (18.6)	43	
		안동	9 (7.8)	29(25.0)	27 (23.3)	32 (27.6)	19 (16.4)	116	
고졸		서울	23 (18.4)	36(28.8)	26 (20.8)	15 (12.0)	25 (20.0)	125	
		안동	8 (9.2)	22(25.3)	18 (20.7)	24 (27.6)	15 (17.2)	87	
대졸이상		서울	39 (26.7)	41(28.1)	10 (6.8)	21 (14.4)	35 (23.9)	146	
		안동	4 (20.0)	1 (5.0)	2 (10.0)	1 (5.0)	12 (60.0)	20	
		합계	91	166	138	131	126	652	

표 17.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

내 용 지 역	행복할 것이다	평범할 것이다	외로운 것이다	불안할 것이다	생각해 본 일이없다	합 계
서울	45 (27.1)	97 (58.4)	9 (5.4)	3 (1.8)	12 (7.2)	166
안동	43 (26.9)	78 (48.8)	15 (9.4)	3 (1.9)	21 (13.1)	160
합 계	88 (27.0)	175 (53.7)	24 (7.4)	6 (1.8)	33 (10.1)	326

구관계 유지」(17.4%)에도 고른 반응을 보여 이의 해결책을 여러방향에서 모색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3)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요구내용 (복수응답)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요구내용에 있어서도 서울과 안동의 지역별로 의식차이를 나타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노인 연금제」(27.4%), 「여가시설 확보」(21.4%)가 1, 2 순위로 나타났으며, 안동의 경우에는 1 순위가 「빈곤노인구조」(27.5%), 2 순위에는 「의료혜택」(24.7%)으로 반응이 나타났다($P < 0.005$).

번인별로 볼 때, 연령별, 학력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서울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직업알선」과 「노인연금제 실시」에 대한 반응 비율이 커지고(서울 $P < 0.005$), 안동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혜택」에 대해 높은관심이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안동 두지역 모두 「여가시설확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안동 $P < 0.005$).

(4)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

응답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에서는 서울과 안동의 지역간의 의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평범할 것이다」가 53.7%, 「행복할 것이다」가 27.0%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년층들은 자신들의 노후생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박재간, 임충식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재간, 임충식, 1983, p 13)에서는 현재의 생활을 「행복하다」고 대답한 노인은 조사 대상자 중 25.8%로서 전체노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대상의 차이로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지만, 성년층

이 기대하는 노후의 생활과 현재의 실제적인 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실천성이 강한 노후대책을 개인, 가정, 국가에서 강구해야만 할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에 따른 노후생활 대책 태도와 대책수립상황

(1) 서울과 안동, 두지역 모두 경제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도 두지역 모두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대에 관한 지역간 의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노후에 경제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자립형」에 강한 반응을 보인 반면 안동에서는 「자녀의존형」에 강한 반응을 보여 두지역간의 의식차이를 나타냈으나, 신체적인 자유를 상실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두지역 모두 「자녀 의존형」에 강한 반응을 보였다.

(2) 자녀와의 동거의식은 긍정과 부정에 따른 지역간 큰 의식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안동의 경우가 긍정적반응이 서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동거하려는 이유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자식부부가 부모를 모시는 가족형태가 좋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며, 안동의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동거희망 이유를 들고 있어 지역간의 의식차이를 보였다.

(3) 노후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내용에는 지역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서울일 경우 「종교 및 취미 생활을 하겠다」에 높은 반응을 보여 자기생활을 중요시 하려는 데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 반면, 안동에서는

「집안일을 도우며 자녀에게 의탁하겠다」라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두지역에서 모두 「신체적인 건강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도 역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제력을 지니도록 한다」와 「취미생활을 한다」, 「원만한 친구관계 유지에 힘쓴다」등에도 고른 반응을 보여 해결책을 여러방향으로 모색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4)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계획의 수립상황에서는 두지역 모두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앞으로 하려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노후를 위한 경제적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경우는 서울보다 안동에서 더 많이 나타나 이에 대한 지역차이를 나타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자녀들로 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노후에 기대되는 수입원을 보면, 두지역 모두 「퇴직금, 저축, 이자배당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2) 지역에 따른 노후의 취업의식 및 노인복지대책의식

(1) 현 정년퇴직 연령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는 안동보다 「부적당하므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더 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간의 의식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데, 그 이유로는 안동일 경우 응답자 전원이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민이었기 때문에 정년연령의 한계가 없어 이에 대한 조정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당한 퇴직시기로는 두지역에서 모두 「건강이 허락할 때 까지」에 매우 강한 반응을 보여 대부분의 성년층에서 노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2)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요구 내용에서는 서울과 안동의 지역별 의식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노인연금제 실시」, 「여가시설 확보」에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이는 서울과 안동의 생활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3) 사회경제적,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후생활 대책 태도

(1)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면에 대한 태도와 노후의 취업의식에 관한 의식차이가 나타났다.

즉, 경제적인 문제는 「자립형」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한 반응을 보였고, 노후에도 계속 「일하겠다」에 대해 남자가 더 강한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2)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은 층일수록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졌다.

노후생활을 위해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비율은 연령이 높은 층일수록 높아지고 있었으나, 45세 이상부터는 그 비율이 낮아졌다. 그 이유로는 40-50대 초반의 시기는 경제적으로 자녀들의 학비문제와 자녀들의 결혼문제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을 위한 노후대책을 세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 정년퇴직 연령에 대한 반응에서는 정년퇴직 연령에 가까운 연령층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현 정년연령의 조정을 원하고 있었다.

(3)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립형」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계획의 수립목적이나 노후생활 설계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종교 및 취미생활」, 「사회적인 단체의 가입」 등 자신의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려는 경향이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복지대책의 요구내용도 학력이 높아지면서 「여가시설확보」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평균 월수입이 고소득일수록 노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립형」이 많았고, 실제적인 경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에 기대되는 수입원도 저소득층에 비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는 고소득층일수록 「집안일을 도우며 자녀에게 의탁하겠다」에 대한 반응은 감소하고 「종교 및 취미생활」, 「사회적인 단체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노인복지대책의 요구내용은 고소득층일수록 「여가시설확보」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노후생활대책에 대한 의식에서는 노년기를 맞이 이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계획 수립상황과 행동에 있어서는 의식과 불일치를 보였다.

2) 지역적, 사회경제적, 인구통계적 변인은 노후대책의식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그리고 연령이 낮고,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생활 태도에서 「자립형」의 태도를 보이고, 사전에 미리 노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년층에게 있어서 노후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이 때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 노인연금제 실시 및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마련된다면 노인문제 해결에는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준비가 노인문제 해결의 기본적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문제의 단계를 아닌 인간발달의 자연스러운 연속단계로서의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나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개인적 대비, 가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를 정립하는 문제, 가정생활에 있어서 노년기를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문제, 창조적인 여가선용,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지도, 정신건강지도 등 노년기를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위한 성년층 대상의 교육적 체계가 조속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고령 인구의 절대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해 주는 노년학에 관한 연구가 가정관리학적 측면에서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령자문제국제행동계획 : 고령자문제 세계회의 보고서,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일본국위원회, 1982.
- 2) 김명자 :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권 3호, 1982.
- 3) 김성순 : 노인복지론, 서울 : 이우출판사, 1981.
- 4) 김태현 : "핵가족화와 노인부양", 핵가족화와 노인복지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 5) 민재성 :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 1980, 가을호.
- 6) 민재성 : "사회복지시책의 기본 방향", 핵가족화와 노인복지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 7) 민재성 : "정년제와 소득보장대책", 제 4회 노인문제 학술세미나 보고서, 한국노년학회, 1982.
- 8) 박재간 :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 : 이우출판사, 1979.
- 9) 박재간·임춘식 :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관한 실태조사", 노인문제 연구보고서 제5집,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83.
- 10) 윤종주 : "노년인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고찰", 핵가족화와 복지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 11) 윤진 : "장·노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관계", 제 5차 학술발표회보고서, 한국가정관리학회, 1982.
- 12) 이광규 :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 일지사, 1982.
- 13) 이두보 : "사회복지 시책의 기본방향", 핵가족화와 노년복지세미나 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 14) 이정숙 : "노인복지와 노인복지 프로그램", 사회복지 제 54호, 1977.
- 15) 이충식 : "노인복지정책의 구체적 과제", 핵가족화와 노년복지 세미나 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 16) 朝日新聞 : 1983년 4월 8일자 14면. 한국경영자협회, "기업정년제의 현황", 경영자료 제 9권 1호. 1979.
- 17) 현의성 :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18) 森幹郎 : 老人問題とけ何ガ, ミホルウフ書房, 1982.
- 19) Bengtson, V.L., Olander, E. & Haddad, A. : "The Generation Gap and Aged Family Members", *Recent Development in the Sociology of Age*, Springfield Illinois : Charles C. Thomas, 1975.
- 20) Kalish, R.A. :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 Cole Publishing Co. 1975.
- 21) Nye, F.I., Berado, F.M. : *The Family*, N.Y. : Mac-Millan Publishing Co., 1973.